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이원주 전력산업과장, 김범수 전력수급팀장, 임기홍 사무관(044-203-5254)

강한 한파에 따른 난방 전력수요 급증으로

사상 최대전력 기록 경신

-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예상되며, 국민불편 없도록 안전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“1월 19일(화) 11시 전력수요가 8,212만kW를 기록하여, 2014년 겨울에 기록한 최대전력수요 8,015만kW[12.17(수) 11시]를 197만kW 경신하였다”고 밝혔다.
 - 오늘 최대전력수요는 그간 엘니뇨 현상에 따른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나, 금주 들어 바람을 동반한 대륙성 고기압 확장으로 전국이 영하 10도(서울 영하 15℃)를 밑도는 한파가 발생하여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.
 -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추위는 다음주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 추위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한편, 전력수요 급증 및 급일 발생한 한울원전 1호기 정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공급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.
 - * 현재 공급능력은 9,500만kW 수준으로 예비력 1,300만kW 이상 유지
 -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기 수립된 추가 수급대책*의 차질 없는 운영 등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 - * 추가예비력 : 421만kW(수요자원거래시장, 석탄화력 출력상향 등)
 - * 비상대책 : 300만kW(민간자가발전기, 공공기관 비상발전기, 긴급절전 등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이원주 과장(☎ 044-203-5240), 김범수 팀장(☎ 044-203-5241), 임기홍 사무관(☎ 044-203-52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